

죽음 성찰과 애도를 위한 소설교육 —김애란 소설을 중심으로

김지혜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 * 이 논문은 제67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8.11.24.)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서론
- II. 죽음교육의 개념 및 목표
- III. 죽음에 대한 성찰
- IV. 애도에 대한 공감적 이해
- V. 맺음말

I. 서론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거치는 하나의 관문이다. 우리는 ‘삶’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반의어 관계로 분리하여 생각하지만, 실제로 두 단어는 반의적 관계가 아닌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자 생의 의미를 규정하는 생(生)의 이면인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죽음은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분리되어왔으며, 이는 삶과 죽음의 분리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과학 및 의학의 발달은 사적인 영역에 있던 죽음을 인식의 객체로서 과학담론의 장으로 끌어들였으며, 근대 국가는 그러한 질병과 죽음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죽음은 병원이라는 공공적·사회적 공간 안에서 담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족과 마을 단위에서 죽어감(dying)과 죽음(death)을 경험했다면, 근대사회에서의 죽음의 의학화(medicalization)는 질병과 죽음을 병원이라는 공간으로 격리하였다. 이러한 죽음의 격리는 삶과 죽음의 단절을 초래했으며,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수용하던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죽음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묘지, 봉안당, 화장장 등이 생활공간

과 격리되는 현상은 현대의 죽음 기피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기세호(2017)는 근대 이전까지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죽은 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묘지를 삶터의 근처에 둠으로써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이 적절한 거리를 두고 긴장을 유지한 데 반해, 근대 이후에는 도시 공간의 발달, 해부학과 세균학 등의 근대적 위생 관념과 함께 묘지가 도시 바깥으로 밀려났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프랑스 파리에는 페르 라세즈로 대표되는 묘지들이 도시 내 휴식과 데이트의 산책 장소로 기능하며 생활 속에 공존해 있는 반면, 서울의 경우에는 현충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묘지들이 혐오시설이라는 낙인이 찍혀 도시 밖으로 밀려나 버렸다는 것이다(기세호, 2017: 92-96).

한편, 현대사회에서 실제 죽음이 배제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디어, 인터넷을 통한 가상의 죽음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에서는 죽음을 낭만적으로 미화하거나 폭력적이고 방식으로 재현함으로써 현대인들이 죽음을 무감각하게 소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짜 죽음의 범람은 생명에 대한 존엄함,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가볍게 여기거나 왜곡하여 생각하게 할 수 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는 죽음이 삶의 과정에서 이탈하여 분리되고 남의 일처럼 되어버리는 ‘죽음의 소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김경재, 2015: 19). 이러한 죽음의 소외는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인 유한함이나 생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뇌를 차단시킬 수 있다. 현대인들은 ‘나’와는 무관한 가상의 죽음만을 안전하고 가볍게 소비함으로써 실제 자신의 죽음, 가까운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몽테뉴(1588/2008)는 『수상록』에서 죽음이란 결국 인간의 한 부분이며 죽음으로부터의 도피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철학이란 죽음을 대비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키케로의 말을 인용하며 죽음을 공부하고 죽음에 닮아가는 일, 세상의 모든 예지와 사유가 결국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조건을 깨닫게 하는 데 있음을 말한다

(Montaigne, 1588/2008: 38, 50, 55). 즉 그는 죽음이 인간 존재를 성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며, 인간이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을 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자세를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자아성찰 및 인간 이해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는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 배제되거나 죽음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반성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국, 독일, 영국, 대만 등 여러 국가에서는 죽음교육(death education)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는 죽음에 대한 터부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죽음교육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으며, 문학교육에서의 죽음교육 연구는 서문미숙(2004), 김지현(2009), 김도희(2010), 박태진(2011), 최은정(2013), 강수빈(2016), 김지혜(2018) 등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특히, 김도희(2010)는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반영된 죽음 모티프를 분석하고, 국어 교과서를 활용하여 죽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죽음 모티프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분류 유형인 ‘삶의 과정으로서의 죽음 인식’, ‘생명 존중 의식 함양’, ‘사별 체험으로 인한 상실감 극복’, ‘죽음에 대한 도덕·윤리적 이해’, ‘죽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에 입각하여 국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예시를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김도희가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죽음교육의 활동을 구안했다면 김지혜(2018)는 문학교육에서의 죽음교육 내용을 ‘① 죽음의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기, ② 타자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기, ③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성찰하기, ④ 생명윤리에 대해 고민하기’로 나누고, 이에 적합한 현대소설 작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현대소설을 활용한 죽음교육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¹⁾

1) 본 연구는 필자의 논문 「현대소설을 통한 죽음교육 연구」의 후속 연구의 성격을 띤다.

특히, 본고에서는 고등학교『문학』에 적합한 죽음교육 제재로서 김애란의 소설들을 분석할 것이다. 선행연구 중 김도희, 최은정은 현대소설을 활용한 죽음교육의 방안을 살펴본 바 있으나,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은정(2013)이 죽음 교육의 제재로 다룬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윤흥길의 「기억 속의 들꽃」,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등은 죽음 및 상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보다는 시대적, 사회적 문제를 전면에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에 죽음교육에 좋은 제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김애란의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고등학교『문학』과목에 적합한 현대소설 제재 및 내용을 고찰하고, 나아가 죽음교육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애란의 장편소설『두근두근 내 인생』, 소설집『바깥은 여름』에 수록된 단편소설인 「입동」과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²⁾

II. 죽음교육의 개념 및 목표

생사학(thanatology) 연구자인 알폰스 디켄은 20세기 전반 무렵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의

-
- 2) 김애란의 소설 중『두근두근 내 인생』과「입동」은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 국어 및 문학 교과서에 수록되고 있어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두근두근 내 인생』의 경우 문학 교과서 지학사(정재찬)에 수록되었으며, 국어 교과서 천재교육(박영목), 비상교과서(박안수)에는 각색 시나리오로 수록되었다. 또한 「입동」은 2015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 창비(최원식)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를 교과서에서는 김애란의 소설을 통해 문학의 본질(지학사), 사회·문화적 가치의 이해(비상), 극 갈래의 이해(천재), 타자에 대한 이해(창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마지막 삶을 보살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이를 통해 남겨진 가족들은 자연히 죽음준비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Deeken, 1995/2002: 19). 우리나라에서 역시 가정이나 마을 공동체 내에서 진행되는 장례식과 마을 내에 자리잡은 선산(先山), 사당(祠堂)은 삶과 죽음의 자연스러운 공존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죽음이 기피되거나 삶의 현장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필립 아리에스(1977/2004)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표상을 통해 죽음에 대한 태도의 변천과정을 연구했는데, 12세기 초까지는 종(種)의 집단적 운명으로서의 죽음과 인간과의 친밀성을 특징으로 하는 ‘길들여진 죽음’으로, 12세기 초부터 17세기까지는 전통적인 친밀성에 개인적인 의미가 부가된 ‘자신의 죽음’으로,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여 미화되고 극화된 ‘타인의 죽음’으로, 그리고 20세기 초부터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상태의 심각성을 감추려는 경향이 생긴 ‘금지된 죽음’으로 점차 변화해왔음을 밝혔다. 여기서 ‘길들여진 죽음’으로부터 ‘금지된 죽음’으로서의 변화는 죽음에 대한 친숙성과 비친숙성 또는 수용과 거부라는 심리적 거리감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죽음의 미학화 역시 부정적인 죽음 기호를 일상에서 배제하려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안장혁, 2013: 70-71).

이러한 죽음의 소외 혹은 배제 현상이 지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세기 이후 생사학(죽음학)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죽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을 사회에서 추방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죽음 각성(Death Awareness)’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는 본격적인 죽음교육으로 이어졌다.³⁾ 또한 독

3) 1963년에 미네소타 대학에서 정식 죽음교육 과정이 개설되었으며, 1973년에는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최소한 600여 곳의 중등학교에서 죽음교육 관련 강좌가 개설되었다. 또한 1976년에는 죽음교육 및 상담협회(ADEC: Association for Death Education and Counselling)가 설립되면서 죽음교육과 상담 작업이 확산되었다(曾煥棠, 2000/2012: 48-50). 이러한 죽음교육은 점차 초등학교 교과목까지 확대 실시되어 현재는 200여 개

일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죽음교육이 시작되었는데, 국공립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매주 2시간씩 하는 종교수업에서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을 하고 있으며, 여러 종의 죽음 교과서를 발간하고 있다(Deeken, 2001/2008: 98-99). 이밖에도 영국에서는 중고등학교 커리큘럼에 ‘상실 체험과 비탄’을 다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1948년 발행되어 매년 개정판이 나오는 『긍정적 비탄(Good Grief)』이라는 중·고등학생용 비탄교육 안내서가 있어 죽음에 대해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있다(Deeken, 2001/2008: 121-124).

그렇다면 죽음교육의 정의 및 목표는 무엇일까? 1982년 퀸트(Quint)는 사람들에게 죽음과 죽어감이 유한한 생명의 필연적인 과정임을 이해시키는 것이 죽음교육이라고 정의했으며, 1977년 코어(Core) 등은 죽음(death), 죽어감(dying) 및 애도(bereavement)에 대해 토론하는 교육이 죽음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레비톤(Leviton)은 죽음교육이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서양철학의 관점, 종교의 죽음관, 죽음에 대한 이론적 관점, 의학과 법률상 죽음에 대한 관점, 죽음과 죽어감에 관련된 태도나 정서, 아동 및 청소년의 죽음에 대한 정확인 인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曾煥棠, 2000/2012, 47-48). 그리고 모건(Morgan)은 죽음교육의 기본적인 의미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죽음을 위한 준비, 죽음과 연관된 문제들의 결정에 대한 교육, 죽음에 대한 태도의 교육이 그것이다(강영계, 2012: 279-281).

그리고 알폰스 디肯은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의 목표를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 ‘인간답게 죽는 법을 생각한다’, ‘죽음의 터부 없애기’,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대한 대응’, ‘생명의 위협: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명 통지와 스피리チュ얼 케어(spiritual care)’, ‘호스피스(hospice) 운동이란’, ‘안락사에 대해’, ‘장기 이식에 관한 생각’, ‘장례식: 어린이를 참석시키는 것의 의미’, ‘유머 교육의 권장’, ‘사후에 대한 고찰: 철학적·종교적 입장’으로

이상의 중등학교와 165개에 달하는 대학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죽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김도희, 2010; 6-7).

세밀하게 나누어 설정하고 있다(Deeken, 2001/2008: 36-37). 이러한 여러 연구자들의 죽음교육의 정의 및 목표를 참고할 때,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이해 및 철학적 성찰과 가치관의 문제, 타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애도의 문제, 그리고 의학적, 과학적 생명 윤리의 문제를 인지적, 정의적, 가치적, 행동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다(김지혜, 2018, 105).

인간 존재의 근원적 조건인 죽음은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 특히, 서사장르인 소설은 인간 삶의 다양한 모습을 다층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이 타자의 삶에 감정이입함으로써 자신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에 좋은 죽음교육의 제재가 될 수 있다. 소설은 경험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인들의 죽음이 불러올 혼란과 슬픔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공포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태도 및 가치를 정립할 수 있게 한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삼고 있는데, 그 중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은 죽음에 대한 성찰과 타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죽음교육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고등학교 『문학』의 성취기준인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성찰과 애도 과정의 이해는 자아 성찰 및 타자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3장, 4장에서는 김애란의 작품들을 통해 죽음에 대한 성찰과 애도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측면⁴⁾을 살펴봄으로써, 현대소설을 통한 죽음교육의 가능성은 구체적으

4) 죽음에 대한 성찰과 애도에 대한 공감적 이해는 김지혜(2018)에서 제시한 죽음교육의 내

로 살펴볼 것이다

III. 죽음에 대해 성찰

셀리 케이건은 죽음의 측면들 가운데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의 필연성(inevability)’, 얼마나 살지 모른다는 ‘죽음의 가변성(variability)’,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편재성(ubiquity)’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 논하고 있다(Kagan, 2012/2017: 375-398). 이러한 죽음의 측면들은 죽음의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이할지 모르는 죽음의 불가해성은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러나 셀리 케이건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죽음의 특성들이 인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지만, 그 한정된 삶의 조건에 의해 희소성이 나타나고, 이러한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삶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Kagan, 2012/2017: 394). 결국 존재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특정한 조합으로 이뤄진 형이상학적 합성물이며, 죽음교육에서는 이러한 존재의 조건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조합이 지닌 긍정적 상호 효과에 대해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김애란의 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조로증이라는 소재를 통해 모두가 겪어야 하지만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의 의미를 묻고 있다.⁵⁾ 사르트르

용인 ‘① 죽음의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기 ② 타자의 죽음에 대해 애도하기 ③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성찰하기 ④ 생명윤리에 대해 고민하기’ 중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것이다.

5) 2015 개정 고등학교 『국어』 비상교육(박안수)에는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의 시나리오가 제재로 실려 있다. 이 작품은 공동체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

가 언급한 것과 같이 죽음은 주체 스스로 향유할 수 없고 타인에 의해 확인되는, “타인에게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이다(Sartre, 1943/1992: 345). 이 소설의 주인공 한아름은 세 살 때 남들에 비해 4~10배의 성장속도를 보이는 희귀병인 조로증을 앓고 있는 소년으로, 열일곱 살의 나이지만 심장마비와 각종 합병증의 위험을 안고 있는 노인의 삶을 살고 있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아름의 모습을 열일곱의 나이에 아름을 낳은 부모의 모습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가장 어린 부모와 가장 늙은 자식의 이야기”(김애란, 2011: 7)라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아름은 부모도 경험하지 못한 노화를 겪으며 “에휴, 아버지도 나이 먹어봐요.”(김애란, 2011: 94)라는 농담을 건넨다.

젊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노인의 삶을 살고 있는 아름은 급격한 노화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정신뿐 아니라 육체로 사는 존재임을 실감한다. “나는 내게 몸이 있단 사실을 깨닫는 데 생애 대부분을 보냈다. 혓바늘이 돋은 순간만큼 혀에 대해 자주 생각하는 때도 없는 것처럼, 각 기관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식하며 살아야 했다”(김애란, 2011: 96)라는 아름의 깨달음은 몸으로 느끼는 구체적인 실존이며, 모든 생명이 향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다.

나는 빨리 늙는 병에 걸렸지만, 세상 어디에도 늙음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노화도 병이라면, 그건 사람이 절대 고칠 수 없는 것 중 하나였다. 그건 마치 죽음을 치료한단 말과 같은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노화 뒤로 줄줄이 따라붙는 증상들을 밝혀내고, 장기가 상해가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뿐이었다. 고작 열일곱 살밖에 안 먹었지만, 내가 이만큼 살면서

는 것을 역량 목표로 삼고 있는 6단원 ‘함께 만드는 세상’에 실려 있다. 비상교과서에서는 이 작품을 통해 조로증에 걸려 외모가 이상한 아름을 대하는 인물들의 편견 어린 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과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그러나 교과서의 지도서에는 이를 “편견과 호기심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으로 설명함으로써 노화와 질병을 장애의 상황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세상에 육체적인 고통만큼 철저하게 독자적인 것도 없다는 거였다. 그것은 누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누구와 나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김애란, 2011: 96)

나 역시 이게 마지막일 듯해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산소마스크를 끼고 있어 여의치 않았다. 죽음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상상해왔는데, 내 앞의 그것은 너무도 갑작적이고 물리적이기만 했다. 기관들의 기능에 집중하느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고통이 생각을 끊어먹고 있었다. (김애란, 2011: 142)

현대의학에서는 질병을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며, 죽음을 실패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름의 깨달음처럼 늙음과 죽음은 절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다. 노화와 죽음은 생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며, 철저히 독자적으로 맞이해야 할 고통인 것이다. 독자들은 아름의 노화와 죽음을 통해 자신 역시 언제가 반드시 죽어야 할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죽음을 상상해 보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소설에서는 남들보다 압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아름이의 인생에 대한 성찰을 보여준다. 학교를 못 다니는 대신 혼자 독서를 통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는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을까”(김애란, 2011: 76), “하느님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김애란, 2011: 80) 등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며 생명의 의미와 자기 삶의 의미에 대해 사색한다. 물론 그는 하느님이 자신을 잊은 것은 아닌지, 혹은 생명에 정교한 수학 체계를 만든 그분이 어째서 자신에게는 그 셈을 틀리셨는지를 질문하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름은 이러한 성찰을 통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소설 속 아름의 글쓰기는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이자 생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며, 남겨진 부모님을 위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생활한 그는 기적적으로 돌려받은 남은 삶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가 열일곱 살에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소설로 쓰기로 한다. 아름의 소설쓰기는 ‘사람이 왜 아이를 낳을까’, ‘하느님은 왜 나를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사람은 왜 아이를 만들까’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생을 다시 살고 싶어서”(김애란, 2011: 79)라는 대답을 하지만 ‘하느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답을 찾지 못했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만남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통해 아름은 자신은 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청춘을 느끼게 되며, 자신에게 남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는 자식이자 유언 같은 소설⁶⁾을 통해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청춘을 살아보게 되는 것이며, 자신 때문에 청춘을 잃어버린 부모님에게 청춘을 돌려줌으로써 아들을 잃게 될 부모님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의 마지막 장에는 「두근두근 그 여름」이라는 아름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뜨겁게 달아오른 한여름에 청춘의 절정을 보내는 열일곱 살 미라와 대수의 사랑 이야기이다. 아름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한여름 같은 부모님의 청춘 이야기를 소설로 씀으로써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청춘을 간접적으로 살아보는 것이다. 또한 이는 아름이 생겨난 시원(始原)에 대한 이야기로서 죽음으로 사라질 아름이 태어나고 존재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름은 이 소설을 부모님에게 선물함으로써 아름다웠던 부모님의 청춘을 되돌려준다. 결국 이 소설은 아름이 남긴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이자 증거이며, 부모님에게 보내는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인 것이다.

아름은 부모님보다 먼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남겨진 부모님이

6) 소설의 프롤로그와 애플로그에서는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 태어나, 다시 나를 낳은 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김애란, 2011: 7),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낳아드릴게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배어드릴게요. 나 때문에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드릴게요.”(김애란, 2011: 324)라는 부모와 자식의 역전된 상징을 통해 소설 쓰기에 담긴 아름의 욕망을 보여 준다.

슬프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중 하나는 가짜 여자친구인 서하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장하여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다.

‘……어릴 때 나는 까꿍놀이라는 걸 좋아했대. 아버지가 문 뒤에서 ‘까꿍!’하고 나타나면 까르르 웃고, 감쪽같이 사라진 뒤 다시 ‘까꿍!’하고 나타나면 더 크게 또 웃었다나 봐. 그런데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건 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기억을 저장하는 거라더라. (중략) 그러니 당분간 내가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까꿍’하고 짓궂게 사라진다 해도, 어릴 때 우리가 애써 배운 것들을 잊지 말아 줄래?’ (김애란, 2011: 318)

아름은 이미 서하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존재임을 알고 있기에 이 메일은 서하가 아닌 아버지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하던 ‘까꿍놀이’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죽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그러니 자신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근두근 내 인생』은 남들보다 급격한 노화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조로증이라는 소재를 통해 죽음에 대해,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게 하며, 죽음 이후 남겨지게 될 가족들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성찰은 현재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전환의 계기가 된다. 이는 “죽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삶이라는 실체를 인정하게 된다”는 생사학의 가르침과도 연결된다(양정연, 2018: 155). 이러한 죽음에 대한 성찰은 생명을 소중히 하는 생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존재론적 성장의 매개가 될 수 있다.

IV. 애도에 대한 공감적 이해

우리는 인생을 살며 여러 차례의 상실 체험을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에서 오는 상실감은 자기 자신이 죽음에 직면한 것과 비슷한 고통과 슬픔을 안기기도 하며, 개인의 자존감을 망가뜨리고 정서적 균형을 깨뜨리며 병리적 위기를 맞이하게 할 수도 있다. 사랑에 대한 상실의 감정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한 프로이트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잘 수용하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낙심,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의 중단,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을 정도로 자기 비하감을 느끼면서 급기야는 자신을 누가 처벌해 주었으면 하는 징벌에 대한 망상적 기대까지 갖게 되는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프로이트는 사랑하는 사람 혹은 이상화된 대상이나 가치가 상실된 충격에서 비롯되는 슬픔(Trauer)과 우울증(Melancholie)의 본질적 차이를 설명하는데, 슬픔은 시간이 경과하면 일상으로 돌아오는 반면, 우울증은 자아가 극단적으로 빈곤해지면서 자책감이나 무력감 때문에 일상이 파괴되고 심하면 자살에까지 이르는 특징을 지닌다고 말한다. 슬픔이 대상의 상실로 고통을 겪는 정상적 상태라면 우울증은 대상에 투여됐던 리비도가 나르시시즘적 퇴행, 즉 자아를 포기된 대상과 동일시하는 데만 기여하는 병리적 상태인 것이다(Freud, 1997/2004: 244-246, 252).

또한 크리스테바는 고전적 정신분석 이론을 토대로 우울증의 특징이 상실한 대상에 대하여 공격성과 양면 감정(ambivalence)을 가졌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 “나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그것을 내 마음속에 정착시킨다. 하지만 나는 결국 그것을 증오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속의 그 타자는 나쁜 자아이고 따라서 나는 나쁜 존재가 된다.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이니까 차라리 죽고 말자.”(김인환, 2003: 100-101)라는 위험한 자아의 논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한

다. 물론 프로이트와 크리스테바의 이론에서 슬픔과 우울증이 명확히 구별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⁷⁾ 상실한 대상을 충분히 애도하지 못했을 때 그 상처가 건강한 회복을 위협하는 병리적 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실의 대상을 상징적 의식을 통해 떠나보내는 ‘애도 작업(work of mourning)’이 필요하다.

이러한 애도 작업은 비탄교육(Grief Education)의 내용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알폰스 디肯은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 이별과 그것에 동반되는 비탄의 연속인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죽을까에 대해 예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남겨진 사람들은 반드시 ‘비탄을 겪는 과정(Grief Process)’이라 불리는 일련의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게 된다(Deeken, 1995/2002: 30).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비탄과정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중·고등학생용 비탄교육 안내서인 『긍정적 비탄(Good Grief)』에서는 죽음의 역사나 가족의 죽음, 자살, 이혼, 장례식의 의의, 사후 생명에 대한 고찰, 비탄과정의 대처 등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Deeken, 2001/2008: 121 - 125). 이러한 비탄교육은 언젠가, 누구에게나 닥칠 사별의 고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별을 경험한 사람을 어떠한 방식을 위로해 주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는 현대소설은 이러한 비탄교육의 효과적인 교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감정이입을 통해 강한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소설은 아동, 청소년들이 죽음으로 인한 상실을 간접 체험함으로써 사랑하는 주변 인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실제 주변인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의 충격과 고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김애란의 「입동」과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모두 사랑하는 가족을

7) 후기 프로이트, 주디스 베틀러, 크리스테바는 애도와 우울증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울증에서 애도, 애도에서 우울증으로의 전환은 순간순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경계선은 모호한 것이다(한귀은, 2010: 316).

잃은 후 남겨진 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로, 세월호 사건에 대해 쓰고 있는 ‘세월호 문학’이다.

「입동」의 부부는 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은 후 그 상실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봄, 우리는 영우를 잃었다. 영우는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오십이 개월. 봄이랄까 여름이란 걸, 가을 또는 겨울이란 걸 다섯 번도 채 보지 못하고였다. 가끔은 열불이 날 만큼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웠지만 딱 그 또래만큼 그랬던,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제 부모를 안을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주던, 이제 다시는 안아볼 수도, 만져볼 수도 없는 아이였다. 무슨 수를 쓴들 두 번 다시 야단칠 수도, 먹일 수도, 재울 수도, 달래줄 수도, 입 맞출 수도 없는 아이였다. 화장터에서 영우를 보내며 아내는 ‘잘 가’라고 ‘잘 자’라 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양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그랬다(김애란, 2017: 21).

남편(영우의 아버지)이 화자로 설정되어 있는 이 소설에서는 아이를 잃은 부모의 애절한 심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그 존재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데에서 오는 절대적인 아픔을 갖는다. 아내는 ‘잘 가’ 대신 ‘잘 자’라고 인사를 함으로써 아들의 죽음을 부인(否認)하고, 그 이별의 슬픔을 외면하고자 한다.

디켄(1995/2002)은 비탄의 과정을 12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는데, ① 정신적 타격과 마비상태, ② 부인(否認), ③ 패닉, ④ 부당함에 대한 분노, ⑤ 적의와 원망, ⑥ 죄의식, ⑦ 공상과 환상, ⑧ 고독함과 억울함, ⑨ 정신적 혼란과 무관심, ⑩ 체념과 수용, ⑪ 새로운 희망-유머와 웃음의 재발견, ⑫ 회복의 단계-새로운 아이덴티티의 형성’이 그것이다. 「입동」의 부부는 갑작스레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①~⑨까지의 복잡한 상황을 겪고 있다. 그들은 “세상이 우리면 빼고 자전하는 듯한, 점점 그 폭을 좁혀 소용돌이를 만든 뒤 우리

가족을 삼키려는 것처럼 보였다”(김애란, 2017: 21)고 느끼며, 타인들과의 접촉을 피한 채 내부로 침잠한다. 그러다 부부는 어린이집에서 실수로 보낸 복분자 액이 벽지에 튀기는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벽지 바르기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는 아들의 상실에 대해 받아들이는 ‘⑩체념과 수용’ 단계로 진입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가 벽에 몰래 써 놓은 이름을 발견하며 아들을 잃은 고통에 오열하게 된다. 아이의 흔적은 “부부가 애도작업을 마치고 삶을 좀 더 원활히 살아가게 되더라도 끊임 없이 돌아와 되새겨질, 아이의 이름이라는 기표”(이재용, 2018: 132)인 것이다. 이 소설은 독자들에게 사별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치유되기 어려운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부모의 절절한 슬픔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소설에서 부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이를 잃은 부모에 대한 이웃들의 무신경함 혹은 과도한 관심이다. 사고가 나자 어린이집 원장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사와 보육교사를 교체함으로써 깔끔한 사고 처리를 한다. 그러나 부부는 그러한 원장에게서 이렇게 까지 했는데 무얼 더 바라느냐는 표정과 태도를 읽어낸다. 또한 그 보험금을 받은 후에는 동네에 남편이 보험회사 직원이란 근거로 ‘동네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소문’까지 돌게 된다. 자식을 ‘돈’과 환원시키는 악의적인 소문은 이들을 고립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특히,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벽지를 바르다 오열하는 아내의 모습은 ‘조화(弔花)’, ‘꽃매’ 같은 벽지의 꽃과 겹쳐져 보인다.

아내는 연주를 끝낸 뒤 수천 명의 기립 박수를 받은 피아니스트마냥 울었다. (중략) 미색 바탕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흰 꽃이 촘촘하게 박힌 종이를 이고서였다. 그러자 그 꽃이 마침 아내 머리 위에 함부로 던져진 조화(弔花)처럼 보였다. 누군가 살아 있는 사람에게 악의로 던져놓은 국화 같았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탄식과 안타까움을 표한 이웃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는지. 그들

은 마치 거대한 불행에 감염되기라도 할 듯 우리를 피하고 수군거렸다. 그래서 흰 꽃이 무더기로 그려진 벽지 아래 쪼그려 앉은 아내를 보고 있자니, 아내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꽃매’를 맞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많은 이들이 ‘내가 이만큼 울어줬으니 너는 그만 울라’며 줄기 긴 꽃으로 아내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였다(김애란, 2017: 21).

이 소설은 마지막 장면을 통해 가족을 잃은 사람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비정한 이웃들의 잔인한一面을 비판적으로 그려낸다. 퀴블러 로스는 사별한 사람들이 슬픔, 죄책감, 수치심,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주변인들은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고, 이성적인 것이건 비이성적인 것이건, 그들의 감정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Kübler-Ross, 1969/2018: 300). 그러나 소설 속 이웃들은 유가족의 슬픔에 일시적인 연민을 표하지만, 그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심지어 슬픔을 의도가 있는 것으로 매도하기까지 한다. 이 소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죽음과 애도에 대한 중충적인 시선을 환기함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물에 빠진 제자를 구하려다 숨지고 만 교사의 아내를 화자로 설정하고 있다. ‘나’는 장례를 마친 후 남편의 혼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집을 떠나 스코틀랜드의 사촌 언니 집에서 홀로 머문다. 낮 선 이국의 땅에서 ‘나’는 긴 잠을 자며 이제는 부재한 남편과의 추억을 회상하거나 남편이 평소 하던 것처럼 스마트폰의 ‘시리’와 대화를 함으로써 남편과 대화하고 싶은 욕망을 표출한다. 또한 영국에서 유학 중이어서 남편의 죽음을 모르는 대학 친구 현석을 만나 남편이 살아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남편의 부재를 부인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남편의 부재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유리 벽에 대가리를 박고 죽는 새처럼 번번이 당신의 부재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다”(김애란, 2017: 228)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나’는 매 순간 남편의 부재를 고통스럽게 확

인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나’의 몸에는 정체불명의 분홍색 반점이 번지는데, 이것은 원인 불명의 염증 질환인 ‘장미색 비강진’이다. 일종의 피부 감기인 이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한 ‘나’의 우울증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위에 별 이상이 없어 남들에게는 멀쩡해 보이는 병”(김애란, 2017: 240)이지만 쉽게 낫지 않은 이 병은 ‘나’의 심연 깊은 곳에 있는 우울증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시간이 내 안에 통째로 들어온 걸 알았다. 그리고 그걸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고통스럽게 감각해야 한다는 것도. 피부 위 허물이 새살처럼 계속 돋아날 수 있다는 데 놀랐다. 그건 마치 ‘죽음’ 위에서, 다른 건 몰라도 ‘죽음’만은 계속 피어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렸다(김애란, 2017: 242).

‘나’는 허물이 내려앉고 벗어지길 반복하지만 쉽게 낫지 않는 피부병을 보며, ‘죽음’ 위에 ‘죽음’이 계속 피어날 수 있음을 느낀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이 쉽게 치유될 수 없음을 예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동」과 달리 이 소설에서는 치유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치유의 가능성을 드러내는데, 그 가능성은 남편이 구하려다가 함께 죽은 아이의 누나가 보낸 편지를 통해 시작된다.

겁이 많은 지용이가 마지막에 움켜쥔 게 차가운 물이 아니라 권도경 선생님 손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놓여요. 이런 말씀 드리다니 너무 이기적이지요?

평생 감사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고, 평생 궁금해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때 권도경 선생님이 우리 지용이의 손을 잡아주신 마음에 대해

그 생각을 하면 그냥 눈물이 날 뿐,

저는 그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사모님, 혼자 계시다고 밥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김애란, 2017: 264-265)

‘나’는 지용이 누나의 편지를 받고 제자를 구하려 했던 남편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나’에게 남편은 아이를 갖기로 결심한 날 다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자신을 버린 남편이었다. 자신을 버리고 죽은 이는 사랑하고 갈망하는 대상이면서 한편으로는 엄청난 박탈감을 안긴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Kübler-Ross, 1969/2018: 35). 자신이 아니라 학생을 선택한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남편을 이해하는 애도작업의 장애물”(이재용, 2018: 134)이 된다. 그러나 ‘나’는 지용이 누나의 편지를 통해 남편이 행위가 “‘삶’이 ‘죽음’에 뛰어든 게 아니라, ‘삶’이 ‘삶’에 뛰어든”(김애란, 2017: 266)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나’는 밥을 거르지 말라는 지용 누나의 안부에 “혼자 남은 그 아이야말로 밥은 먹었을까”(김애란, 2017: 266)라며 동생을 잊은 누나의 처지에 연민과 공감을 느낀다. 이러한 궁금함은 남겨진 이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위로와 공감이며, 이러한 위로와 공감은 슬픔과 죄책감, 분노를 넘어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것이다.

작품집 『바깥은 여름』의 「입동」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로 끝맺고 있다. 이러한 작품의 순서는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사별을 경험한 이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가까운 이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주변인들의 공감과 위로에서 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설들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타인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윤리와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V. 맷음말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그러나 상처와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생명에 대해 더욱 경건할 수 있으며, 타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이러한 문학 작품들을 통해 학습자들은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죽음학 및 죽음교육의 이론을 검토하여 죽음교육의 개요 및 목표에 살펴보았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주제적 측면에서 죽음을 다루고 있는 김애란의 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고등학교 『문학』 교과에서의 죽음교육의 실행 가능성 및 방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죽음교육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인 죽음에 대한 성찰과 타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중심으로 김애란의 작품을 분석하였다. 『두근두근 내 인생』의 조로증 환자인 아름의 서사는 청소년 학습자들이 인간이 겪게 될 노화와 죽음에 대해 성찰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학습자들은 단편소설인 「입동」과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를 통해서 사별한 이들의 슬픔과 애도의 과정을 경험하고, 죽음의 슬픔을 겪는 타자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의 문제, 죽음에 대한 윤리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죽음을 다루고 있는 문학작품들을 통해 학습자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나아가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의 폭을 넓힘으로써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죽음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 내에 본격적인 죽음교육을 다루고 있지 않다. 물론 죽음이라는 소재는 예민한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죽음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성인 학습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국어과의 『문학』을 통해 죽음교육을 중심적으로 다루었으나 이는 도덕, 윤리 과목과의 학제 간 교육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며, 보건교육의 자살 방지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융복합 수업으로도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19.8.10. 투고되었으며, 2019.8.12. 심사가 시작되어 2019.9.12.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수빈(2016), 「고전소설 속 죽음의 의미 탐구를 통한 문학교육 내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영계(2012), 『죽음학 강의』, 서울: 새문사.
- 기세호(2017), 『적당한 거리의 죽음』, 서울: 스리체어스.
- 김경재(2015), 『죽음의 부활 그리고 영생』, 파주: 청년사.
- 김도희(2010), 「국어 교과서를 활용한 죽음교육—죽음 모티프 분석을 통한 교육 방법 모색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6, 1-30.
- 김애란(2011), 『두근두근 내 인생』, 파주: 창비.
- 김애란(2017), 『바같은 여름』, 파주: 문학동네.
- 김인환(2003),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문학 탐색』,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지현(2009),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죽음의 교육적 가치와 지도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18), 「현대소설을 통한 죽음교육 연구」, 『문학과 환경』 17(3), 93-124.
- 박태진(2011), 「죽음 제재 관련 시 창작을 통한 죽음 교육의 의의 모색」, 『문학교육학』 36, 287-320.
- 서문미숙(2004), 「소설 속의 죽음 가르치기」,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장혁(2013), 「괴테와 죽음의 현상학(1)—괴테의 작품에 나타난 죽음서사 분석과 죽음대비교 육의 토대 담론을 위하여」, 『괴테연구』 26, 67-88.
- 양정연(2018),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세 가지 가르침」,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워크숍, 『동양고전 속의 삶과 죽음』, 서울: 박문사.
- 이재용(2018), 「재현의 (불)가능성과 반복의 필요성—김애란, 방현석, 김탁환의 ‘세월호 문학’을 중심으로」, 『작가들』 64, 125-140.
- 최은정(2013), 「소설 작품을 활용한 죽음 교육 연구: 중학교 교과서 수록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귀은(2010), 「애도를 위한 문학치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어문학』 110, 305-335.
- Aries, P.(2004), 『죽음 앞의 인간』, 고선일(역), 서울: 새물결(원서출판 1977).
- Deeken, A. (2002),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오진탁(역), 서울: 궁리출판사(원서출판 1995).
- Deeken, A. (2008), 『인문학으로서의 죽음교육』, 전성곤(역), 고양: 인간사랑(원서출판 2001).
- Freud, S. (2004),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박찬부(역), 서울: 열린책들(원서출판 1997).
- Kagan, S. (2012/2017), 『죽음이란 무엇인가』, 박세연 역, 서울: 엘도라도(원서출판 2012).
- Kübler-Ross, E. (2018), 『죽음과 죽어감』, 이진(역), 서울: 청미출판사(원서출판 1969).
- Montaigne, M. D.(2008), 『수상록』, 권웅호(역), 서울: 흥신문화사(원서출판 1588).

- Sartre, J. P.(1992),『존재와 무2』, 손우성(역), 서울: 삼성출판사(원서출판 1943).
- 曾煥棠(2012),『죽음교육』, 林綺雲·曾煥棠·林慧珍·陳錫琦·李佩怡·方蕙玲,『죽음학: 죽음에서
삶을 만나다』, 전병술(역), 서울: 모시는 사람들(원서출판 2000).

죽음 성찰과 애도를 위한 소설 교육

김지혜

전통사회에서는 삶과 죽음이 자연스럽게 공존했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삶에서 죽음이 기피되거나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1960년대 이후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이러한 죽음의 배제 현상이 지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죽음학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죽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죽음교육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죽음 교육은 죽음에 대한 이해 및 철학적 성찰, 타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애도의 문제, 그리고 의학적, 과학적 생명 윤리의 문제를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해 깨닫고 생명의 소중함으로 일깨우는 데 필요한 교육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죽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인 죽음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김애란의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고등학교 『문학』 과목에 적합한 현대소설 제재 및 내용을 고찰하고, 나아가 죽음교육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소설은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죽음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죽음을 간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공포와 슬픔을 극복하고, 죽음에 대한 태도 및 가치를 정립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은 남들보다 급격한 노화와 죽음을 겪는 조로증 환자의 서사이다. 이 소설을 통해 학습자들은 인간이 겪게 될 노화와 죽음에 대해 성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또한 단편소설인 「입동」과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모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후 남겨진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두 소설을 통해 학습자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사별한 이들의 슬픔과 애도의 과정을 경험하고, 나아가 죽음의 슬픔을 겪는 타자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상처와 죽음이 있기에 생명을 더욱 소중히 할 수 있다. 죽음을 다루고 있는 문학작품들을 통해 학습자들은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의 폭을 넓히고,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죽음교육, 비탄교육, 소설교육, 죽음 성찰, 애도, 죽음학, 김애란

ABSTRACT

Novel Education Approaches for Introspection and Mourning Regarding Death

Kim Jihye

In traditional society, the life and death were naturally coexisting while the death is mostly avoided or excluded from life in modern society. In order to overcome problems with the exclusion of death, the researches on the thanatology have been continued in countries like the US and Germany since the 1960s, and the necessity of death education started rising. The death education on issues like understanding and philosophical introspection of death, sorrow and condolences on other's death, and medical/scientific bioethics is necessary to arouse the realization of the preciousness of life in human beings. Especially, the death of oneself or others could be indirectly experienced through novels, so that the sorrow and fear of death could be overcome, and the value and attitude toward death could be established as well.

This study concretel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death education through novels by Kim, Ae-Ran. Kim, Ae-Ran's *『My Brilliant Life』* is the narration of a patient with progeria suffering from rapid aging and death. Through this novel, the learners could introspect the aging and death that would be experienced by humans, and then realize the preciousness of life. Also, her short stories *「The Onset of Winter」* and *「Where Would You Like To Go?」* handle the stories of characters left behind after losing a beloved family member. Through these two novels, the learners could experience the process of sorrow and mourning of people who have lost beloved ones, and also think about how to console others going through the sorrow of death. Even though humans unavoidably experience the death, life could be more cherished due to the existence of wound and death. Through the literary works talking about death, the learners could

not only expand the range of introspection on human beings, but also learn about the true value of life.

KEYWORDS Death Education, Grief Education, Novel Education, Introspection of Death, Mourning, Thanatology, Kim, Ae-Ran